

# 과도한 입찰제한 지역업체 원성

### 원광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설계용역 발주조건, 도내 건설업체 충족 못해

원광보건대학교가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제한을 과도하게 적용해 도내 건설업체 원성을 사고 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도급도 허용치 않아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해당 용역에 대해 건축설계용역부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부실설계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도내 건설업체에 따르면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7일 학교 내 약 4,100㎡ 부지에 공사비 132억 3,800만원을 투입해 기숙사 1개동을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숙사 용도의 단일건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 단독 설계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또한 공동도급

도 허용치 않았다.

이에 도내 건설업체는 입찰 공고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절대적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모처럼 발주된 용역이 지나치게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인해 참여가능한 도내 업체가 단 1곳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동도급도 허용치 않아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도내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 단일 건축물로 기숙사 1만㎡ 실적업체는 전무한 상태"라며 "해당 공사에 도내 건축사사무소가 입찰에 참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 예규까지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북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처럼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도내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용역은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시공) 입찰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축설계용역부분에는 부실 설계 등의 우려로 인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및 자치단체 입찰에서도 건축설계용역입찰은 예정가격의 87.74%의 직상가를 낙찰자로 정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도 직상가 낙찰로 변경하고, 또한 입찰 참여 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해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광보건대학교 관계자는 "도내 업체들이 이번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후에 변경공고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지난 4월부터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전북달팽이장터를 통한 전북농산물 판매가 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우체국, 전북농산물 판매 전문인양성나서

지난 4월부터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전북달팽이장터를 통한 전북농산물 판매가 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북우정청은 22일 라이프포스트홀에서 시군 단위 우체국별 우수인력을 선발해 전북달팽이장터 MID로 임명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전북의 우수농산물 판매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 한 이베이코리아 이한진 과장은

"올해 시작된 전북달팽이장터는 짧은 기간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북농산물의 판매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우정청 김병수 청장은 "우체국이 지역사회의 경제활력원이 되고자 개설한 전북달팽이장터가 지금까지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온라인 판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북농산물 판로개척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김장철 생강값 폭락 생산 농가 '시름'

### 수확 초기보다 가격 낮은 기현상... 재배면적·생산량 통계 없어

생강값이 크게 떨어져 재배 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생강 농민들에 따르면 올해 수확한 생강의 산지 평균가격(20kg기준)은 17일 현재 2만~2만2,000원이다. 이 같은 가격은 8만~8만1,500원 하던 1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더구나 생강은 김장철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올해는 수확 초기보다 김장철에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생강 도매가격(중품 20kg 기준)은 수확 초기인 10월 15일 4만2,500원에서 17일 3만5,000원으로 한달전에 비해 7,500원이나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아예 생강 수확을 포기하

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제의 한 농민은 "2000평 밭에서 수확한 생강을 현 시세대로 모두 팔아봤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로 800만원을 지출해야 하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생강값이 맥을 못추는 것은 생강을 재배하지 않던 농가들이 생강 쪽으로 대거 작목을 전환해 재배면적이 늘어난 데다 올해 예상외로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농민은 "생강은 전통적으로 토굴을 파서 보관해왔으나 최근 저온 창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자 전국적으로 고추재배 농가들이 대거 생강으로 작목을 바꿨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 생강작황이 예상을 뒤엎고 호조를 보여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10~15% 수확량이 늘었다는 게 재배 농민들의 얘기다.

여기에다 중국산 신선생강의 수입도 꾸준히 이뤄져 국내산 생강값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국내 생강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수급 안정을 위해 손을 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보통 생강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종자용으로 공급한 생강이 얼마나 되는지를 환산해 산출하지만 종자용이 아닌 식용 생강을 그대로 심는 농가가 많아 정확한 통계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생강도 무배추처럼 정부에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강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경진원, 기업애로 방문해소 큰 호응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지역별 기업을 찾아다니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를 실시하고 있다.

경진원은 22일 군산지역을 찾아 지

역 내 기업대표 2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자금, 마케팅 등 기업애로 해소 상담을 실시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상담된 애로사항은 현장해

결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해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상담자에게 회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별 단계별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 도공, 겨울철 폭설대응 현장훈련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서해안고속도로 부안주차장(임시휴게소)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차단 등의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긴급 구난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부안 구간의 집중폭설(시간당 15cm)로 인해 목포방향 104.0km 지점에 대형화물차 1대가 전복돼 연쇄추돌이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실시한다.

사고로 인한 다수의 차량피해 발생 및 후방 2km에 이르는 차량정체에 따른 고립 상황에 대비하며, 도로의 전면차단이 실시될 예정이다.

훈련은 중앙부리대 개방, 헬기 및 구급차 환자수송, 사고차량 견인, 고립차량 구조 및 홍보, 고립차량 회차, 제설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훈련 중 부안주차장 앞 1.0km 구간은 본선통행이 차단(양방향)되고, 차량은 부안주차장 광장부를 우회해 통행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설해대비 합동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처능력과 유관기관 상호협력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훈련시간대에 출퇴근·부안IC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LX공사 신입사원 113명 공개 채용

능력중심채용(NCS)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LX공사가 2017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하반기 채용에는 기획경영, 지적측량, 공간정보, 국토조사 등 4개 분야에 총 113명을 선발한다.

지적측량분야에 별도의 고졸인재 전형도 있다.

지난해 능력중심채용(NCS)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LX공사는 올해도 학력, 학점, 전공, 어학성적 등의 스펙을 전혀 보지 않고 서류전형 없이 지원서를 충실히 제출한 경우 모두 1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접수는 24일부터 30일까지 공사 홈페이지(www.lx.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원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격, 경력, 경력 등을 역량기반 입사지원서에 작성해 순서대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전원일정은 필기시험(12.17)과 역량면접(1.12~1.13)을 거쳐 내년 1월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뒤 약 4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쳐 95% 이상 정규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계획 바라보기

#### 전북중기청, 전북벤처포럼 개최

전북중소기업청은 오는 24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멘토링 및 투자연계 등을 통한 전북지역 창업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제고를 위해 전북지역 창업선도대학,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함께 '제4회 전북벤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진행한 포럼을 통해 발굴한 우수 창업기업(4업체)을 대상으로 수도권 VC를 초청해 2016년 전북벤처포럼 A/S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포럼 발표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입장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실무에 대한 VC가 알려주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발표요령' 특강을 실시해 창업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예

비창업자, 인텔투자자, 유관기관 학생창업동아리 등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행사 후 참석자 경품 추첨 및 네트워크 시간이 준비돼 있다.

전북중기청 정원택 청장은 "전북벤처포럼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 발판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에 많은 관심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 8월부터 운영해온 전북 벤처포럼은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전북벤처포럼 운영진, 창업선도대학, 벤처.창업계획서 작성과 실무에 대한 VC가 알려주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발표요령' 특강을 실시해 창업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예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